

# 수능 100% 반영 10곳 늘어 81개大

한국대학교육협의회(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)가 16일 발표한 2010학년도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정시 모집 인원 감소 등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.

최근 몇년간 계속 온 정시모집 인원 감소 추세는 올해도 여전히 총 모집인원 대비 41%로 줄었고, 전형요소 중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, 면접·구술고사 비중이 늘고 논술비중은 감소했다.

## 면접·구술고사 비중 늘고 논술 감소

## 호남대·광주대는 학생부 100% 반영

◇모집인원 감소세 지속=수시 선발인원이 아니라면서 정시모집 인원은 해마다 줄고 있다. 올해 정시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7천945명 줄었으며, 수시와 정시를 합친 올해 총 모집인원 대비로는 41.2%에 그쳤다.

정시모집 인원 비율은 2006학년도(52%) 까지만 해도 50%대를 넘었으나 이후 2007학년도 48.5%, 2008학년도 46.9% 등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.

이처럼 정시모집 인원이 감소한 것은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기 위해 수시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고,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정원이 대폭 줄어든 데다 포스텍의 경우 올해 정원의 100%를 수시만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분석된다.

이번 정시모집에 특별전형도 눈여겨 볼 만하다. 특기자전형으로 17개 대학이 237명, 대학독자적기준전형으로 75개 대학이 4천229명, 취업자전형으로 4개 대학이 46명, 농어촌학생전형으로 131개 대학이 3천770명, 전문계고교출신자전형으로 103개 대학이 2천576명, 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46개 대학이 446명, 기초생활수급자전형으로 64개 대학이 1천56명을 뽑았다.

◇수능 비중 확대=정시모집의 주요 전형 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, 수능시험, 면접고사 등인데 이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수능이다.

지난해 수능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대학별로 수능 반영비중이 대폭 확대됐는데, 이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.

다른 전형요소 없이 수능만 100% 반영해 선발하는 대학이 일반전형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전남대, 조선대를 비롯한 고려대, 서강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이화여대, 한국외대, 한양대 등 81개교로 작년보다 10곳 늘었다.